DBpia

경상남도 남해안 화석지 조사·연구 결과

양승영[1] · 최현일[2] · 서승조[3] · 김정률[4*] · 김경수[5]
[1]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킹덤오피스텔 805호, [2]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APT 29동 402호 [3]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4]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5]충북과학고등학교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와 구랑리 북동부 해안, 자혜리 남동부 해안과 비토리 남동부 해안, 월등도, 송도, 별학도, 진도, 향기섬, 굴섬, 소진도 그리고 경남 사천시 곤양면 광포 해안과 중항리 해안, 남해군 창선면 추도와 가인리 동북 해안과 그 일원의 도서들을 대상으로 화석지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 연구에서 화석들이 발견, 기재된 지점들은 하산동층의 상부, 동명층(진주층)의 하부 및 함안층의 상부에 해당된다.

이번 남해안 화석 산지 조사로 새로이 발견된 화석 산지는 총 20여 곳이며, 그 가운데 3곳은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 3곳은 지방 기념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 기념물로 지정 보존할 만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이 산출되는 곳은 다음 3곳이다.

1) 비토리 3-4 지점(다양한 공룡 발자국, 포유류(?) 동물의 발자국, 다양한 형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 등의 화석과 빗방울 자국, 불꽃 구조, 개시 구조, 연흔, 건열 등 다양한 퇴적 구조들이 집중 발달하고 있는 곳)

2) 대진리 광포 해안(*Trigonioides* sp., *Plicatounio* sp., *Nagdongia soni* 등의 이매패류 화석과 *Brotiopsis kobayashii, Viviparus* sp. 등의 복족류 화석 그리고 공룡 골격 등이 발견되는 곳)

3) 가인리의 해안(다양한 수각류, 조각류, 용각류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공룡 발자국과 최고(最古)의 물갈퀴 새 발자국, 대형 탄화목(굵기 0.35m 길이 2m) 등의 화석이 발견된 곳)

그리고 다음 3곳은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화석이 산출된다.

1) 창선면 추도(두 개의 발가락 자국을 갖는 공룡 발자국 보행열, 조각류 공룡 발자국, 공룡 골격 등이 발견되고 있는 곳)

2) 구랑리 동남부 해안(경린 어류, 복족류, 이매패류, 익룡 발자국 봉상 스트로마톨라이트, 조각류 공룡 발자국 등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는 곳)

3) 송도 서부 해안(이매패류와 복족류 화석, 공룡의 골격 화석 등이 발견되는 곳)

www.dbpia.co.kr